

# 추석 코앞, 장보기 겁난다

### 배추 한포기 3,240원·오이 10개 8,275원·파리고추 100g 1,233원 젓은 비에 태풍 겹쳐 1주일전보다 농산물값 5~25% 까지 올라

태풍 '나리' '위파'와 함께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값이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추석 제수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된 '가을 장마'로 인해 이달부터 강세를 보였던 농산물값이 지난 주말 이후 급상승해 추석장을 보려는 주부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19일 광주원에농협과 소매업체 등에 따르면 과일값의 경우 소폭 상승했으나, 채소값은 적게는 5%에

서 많게는 25%까지 올랐다.

고랭지 배추(1포기)의 경우 14일 2천980원에서 19일 3천240원으로, 8.7% 뛰었다. 또 같은 기간동안 양배추(1포기) 1천990원→2천490원(25.1%), 오이(10개) 6천800원→8천275원(21.7%), 당근(1kg) 2천46원→2천246원(9.7%), 파리고추(100g) 1천66원→1천233원(15.6%), 토마토(1kg) 4천53원→4천813원(18.7%) 등 오른 가격이 거뒀다.

이밖에도 비의 영향을 비교적 받

지않아 그간 전년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했던 양파와 고사리·도라지 등은 최근 들어 습도가 높아지면서 저장성이 떨어져 5%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입량이 늘어난 시금치(1kg) 8천633원→7천40원(-18.5%), 붉은고추(100g) 873원→773원(-11.5%), 고랭지 무(1개) 2천46원→1천830원(-25.6%)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과일은 수박(1개) 1만9천800원, 참외(10개) 1만6천700원, 사과(10

개) 1만4천975원, 배(10개) 1만7천66원 등으로 변함이 없었으며 작황이 좋은 복숭아(10개)는 1만6천600원에서 1만2천725원으로 23.4%나 내렸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원예농협 관계자는 "올 여름 강한 자외선 탓에 사과와 껍질이 타들어가는 등 착과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감귤은 주산지인 제주도에 불어닥친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수확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배추·꽃고추·사과·배·복숭아 등 반입물량을 늘려 추석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전남 65세이상 10명 중 7명

### 전국 최고·광주 수급률 61%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전남과 서울의 격차가 26%에 달하는 등 지역별 소득·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수급자 수 추계'에 따르면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3.5%(33만1천75명)가 수급 대상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최하위인 서울 47.7%(86만2천462명)과는 25.8%나 차이가 난다. 지역별 수급률은 전남에 이어 ▲경북 69.3%(38만9천689명) ▲전북 68.7%(26만7천461명) ▲경남 67.2%(35만5천915명) ▲강원 64.7%(20만3천594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수급률이 61.3%(11만6천75명)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부산 64.6%(35만181명), 울산 62.1%(6만7천138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같은 격차는 시·군·구간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고흥군과 완도군이 수급률이 각각 81.2%, 80%에 달하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서초구(31.8%)와 강남구(35%) 등은 수급률이 40%를 밑돌면서 지역별 노인들의 소득·재산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의 경우는 월 40만원, 부부노인은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전

###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수급률 추계 (단위:명)

지역	수급률
전남	73.5% (331,075)
경북	69.3% (389,689)
전북	68.7% (267,461)
대전	67.2% (116,218)
강원	64.7% (203,594)
서울	47.7% (862,462)
부산	64.6% (351,181)
울산	62.1% (67,138)
광주	61.3% (116,075)
인천	61.2% (208,787)
경기	53.0% (891,374)
제주	54.7% (62,277)

체 노인의 60%로 추정되는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에게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4천원이 매달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만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근접한 경우에는 지급액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노인부부는 20%가 감액돼 부부합계 13만4천원을 지급받는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입대소득,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적금 주식 보험상품 금융재산, 임주권 등이 모두 평가 대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전남 중소기업 72% 추석 상여금 지급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추석 상여금 지급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추석휴무는 대부분 나흘간의 기본연휴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113개 중소기업체로 대상 중소기업의 추석 상여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1.6%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5.3%보다 6.3%p 늘어난 수치다.

또 이들 기업은 이번 추석을 맞아 업체당 평균 1억7천56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이중 1억3천200만원은 확보 가능하고 4천36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자금부족율이 24.8%에 달했다.

부족한 자금을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1.5%)로 채우는 기업들이 많았으며, 결제자금 연기(26.4%)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3.8%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자금확보가 어려워 사채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업체도 5.7%나 됐다.

추석 휴무기간은 4일(51.3%)이 가장 많았고 5일(39.8%), 6일 이상 쉬는 업체(2.7%)도 있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추석 대목 재래시장 이용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 등 10개 기업활성화 지원기관 임직원들이 19일 광주 대인시장에서 재래시장 이용을 권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광주 비경제활동 인구 늘었다

### 46만 9,000명...육아 등 1년새 2.4% 증가

전남은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가 144만9천명으로 2005년보다 1.0%(1만4천명) 감소한 데다 경제활동인구가 93만4천명으로 2.0%(1만9천명)나 줄었다. 또 같은 기간 가사(19만1천명)와 통학(12만3천명)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0%(5천명)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다소 악화됐다.

한편 광주·전남은 지난해 실업률이 각각 4.2%, 1.7%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보다 각각 0.1%, 0.6% 낮아진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전남 조선산업 기능인력 부족 여성·외국인 노동자 활용해야”

### ‘인력 수급’ 심포지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남지역 조선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19일 오후 3시 목포 상그리아 호텔에서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조선기자재 업체 등 조선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기능인력 수급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목포대 김영훈 교수는 “전국적으로 기능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매년 2천명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도 지난 1997년 37.6세에서 지난 2006년에는 42세로 높아지는 등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남의 경우 대한조선 등 신규업체 가동이 본격화하면서 기능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족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성과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 김창규 자동차조선팀장은 “한국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과 기능인력 등 생산요소 부족, 후방연관산업 취약, 조선업 진출 경쟁 격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능인력을 비롯한 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 제품 차별화, 과당경쟁 지양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조선 김영근 이사는 “다음달 개원하는 조선기술교육원에서 매년 1천 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전체의 15% 정도를 외국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산자부 지역산업진흥사업, 노동부 중소기업 직업훈련연수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 오는 2012년까지 조선기능인력 5천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금호石化 대규모 공장 증설 2010년까지 2,853억 투자

금호석유화학(대표 기옥)이 합성고무 및 정밀화학 제품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대규모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공장인 BR(합성고무의 일종)공장 증설에 1천640억원, SBR공장 증설에 970억원 등 2천610억원, 정밀화학공장 증설에 243억원 등 2010년까지 총 2천853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BR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2009년 10월 SBR 및 BR을 포함한 합성고무 생산능력이 기존 64만 3천에서 76만3천으로 늘어나게 돼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아차 교통안전 공모전

기아차가 2005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공모전을 연다.

기아차는 다음달 9일까지 ‘어린이가 바라는 안전한 등굣길’이라는 주제로 전국 1~6학년 초등학생과 학생들에게 포스터와 글짓기를 공개 모집한다.

포스터 부문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우편을 통해, 글짓기 부문은 기아자동차의 성장세대 마케팅 사이트인 펀키아(www.funkia.kr)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株)행복출판은  
-정식하게 10년 이상의 교육·계몽  
선물이고 부가·예를 위한 정서  
이제는 국내 최대 교육 출판사로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가장 믿을만한 출판사로써  
수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우수 1위 한국대표 출판사  
10년 연속 교육계 최우수 출판사  
(株)행복출판 (062) 527-3388

Sthe1 요리학원  
★ 제2기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스시·초밥·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 일식조리사(1개월과정)
- 일식조리사(2개월과정)
- 일식조리사(3개월과정)
- 일식조리사(4개월과정)
- 일식조리사(5개월과정)
- 일식조리사(6개월과정)
- 일식조리사(7개월과정)
- 일식조리사(8개월과정)
- 일식조리사(9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0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1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2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3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4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5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6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7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8개월과정)
- 일식조리사(19개월과정)
- 일식조리사(20개월과정)

대한민국 대표 요리학원 Sthe1 요리학원 (062)385-0723-4